**세계경제포럼(WEF) AI 기술로 2030년까지 일자리 22% 바뀜.**

세계경제포럼(WEF) ‘미래 일자리 보고서’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1억 7000만개가 새로 생기는 동시에 9200만개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.

AI 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, 사이버 보안 등 신규 정보기술(IT) 분야에서 노동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 봄.

생성형 AI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 분야의 전문직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단순 행정 및 계산 작업, 그래픽 디자이너 등 직무는 고용이 감소할 전망.

고소득 국가의 고령화와 저소득 국가의 노동 연령 인구 증가로 돌봄, 교육 직군의 일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관측.

사이버보안 등 역량을 지닌 인재 수요 또한 늘어날 전망.

글로벌 노동력을 100으로 가정하면 2030년까지 59명이 재교육 또는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됨.

이 가운데 11명 정도는 못받을 가능성이 큼.

출처 :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30/0003274463